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청신호'... 복수 입찰로 반전

2곳 인수의향... 유찰 우려 벗어  
퀵커머스 물류 기능, 강점 꼽혀  
희망가-시장 가격 차이 '변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찰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상황에서 복수의 기업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데 이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본입찰 절차가 공식화되면서 매각 성사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3일 공고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식화했다. 매각 방식은 자산 또는 영업양수도이며,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인수입찰서 접수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앞서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 결과, 두 곳의 기업이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엠지씨글로벌이다. 업계에서는 롯데·GS 등 기

존 SSM 강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들이 선을 그으면서 한때 유찰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복수 참여가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이번 매각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면서 기존 LOI 제출 기업 외에도 추가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 잠재 인수 후보들은 6일부터 20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통상 M&A 과정에서 LOI를 생략하고 본입찰에 바

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최종 입찰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엠지씨글로벌의 참여는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엠지씨글로벌은 현금 동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93개 점포 가운데 223개 점포가 퀵커머스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오프라인 점포망과 도심 물류 거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커피 프랜차이즈와의 시너지뿐 아니라 도심 라스트마일 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인수 매력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매각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실사, 본계약 체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가격 눈높이 차가 변수다. 홈플러스측의 희망가는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적정 가격을 1500억원 안팎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SSM 업황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존재감이 약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유통기업 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유통매출에서 SS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2.2%에 그쳤다. 2021년(2.7%) 대비 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공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알짜인 SSM을 떼어내고 남은 대형마트 부문은 수익성이 더 낮다. 이커머스 강세 속에서 오프라인 마트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관건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간 장기화로 약화된 협력사들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매각 대금으로 미지급금을 청산하더라도, 떠나간 우수 협력사들을 다시 불러들여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매각은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통매각에 실패한 이후 분할 매각으로 전환한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업체가 LOI를 제출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지만, 실제 인수 여력과 사업 시너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본입찰 참여 기업 면면에 따라 매각 성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5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연장해 둔 상태다. 익스프레스 매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언급했던 만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SK바이오팜, CNS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서울바이오허브와 오픈 이노베이션  
중추신경계 분야 유망 스타트업 2곳  
노보렉스·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선정



'2026 서울바이오허브-SK바이오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현우 서울바이오허브 센터장, 김성영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대표, 서울시 강해라 첨단산업과장, 손우성 노보렉스 대표, SK바이오팜 황선관 R&D부부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출범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중추신경계(CNS) 분야 유망 스타트업 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은 노보렉스,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보렉스는 인공지능(AI) 기반 구조 분석 기술을 활용해 파킨슨병 발병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LRRK2'를 표적, 저해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노보렉스의 정밀 타겟 결합 기술에 자사의 글로벌 임상 설계 노하우를 더해, 전임상 단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정밀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는 자가포식

활성화 기전을 통해 세포 내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 질환의 근본 원인에 접근한다. SK바이오팜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경면역 및 뇌 질환 분야에서 기존 약물과 차별화된 시너지를 창출하며 혁신적인 치료 솔루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1년간 SK바이오팜 연구진으로부터 기술 실증(PoC), 임상 진입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자문을 받는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신경면역 등 중추신경계(CNS) 내 미개척 영역의 유망 기술을 조기에 검증하고 당시의 성공 DNA를 이식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차세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지씨씨엘, '비스메데리'와 백신 개발 협력

유럽-아시아 잇는 협업 기반 강화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왼쪽)와 비스메데리 총책임자 알레산드로 마네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씨씨엘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월드 백신 콘그레스 2026(WVC 2026)' 현장에서 유럽 비스메데리 유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비스메데리는 바이오분석 전문기업으로 분석법 개발, 면역원성 평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해 주로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글로벌 백신 개발 및 임상시험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양사가 축적한 분석 전문성과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APAC)을 잇는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한다.

특히 양사는 최첨단 BL2~3급 연구 시설과 백신·감염병 분석 역량을 연계해 신종 감염병, 포스트 팬데믹 등에 대응 가능한 글로벌 백신 개발 프로젝트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 병원체 기반 백신 후보물질

연구를 포함해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가능성을 모색한다. 임상 인프라, 규제 과학 등과 관련해서도 협업한다.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해 글로벌 백신 개발 고객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상시험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스메데리 총책임자(CDO)인 알레산드로 마넰티는 "지씨씨엘과 함께 다양한 시장에서 협력하며 백신 개발 프로젝트 지원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기억력·건망증 개선 '기어케어정' 출시

광동제약, 동의보감 처방 재해석

광동제약은 한방 기억력감퇴 개선제 '기어케어정(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어케어정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장원환(壯元丸)' 처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개발된 기억력감퇴 개선제다. 건망증과 기억력 개선뿐만 아니라 신경안정 효능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총명탕'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알려진 원지(원지강제), 석창포, 복신을 비롯해 용안육, 지황(지황주세), 현삼, 인삼, 당귀(당귀주세), 산조인(산조인초), 맥문동, 백자인(백자인거유)까지 총 11가지 한방 복합 성분을 함유했다. 특히 약재 중 5종(원지강제, 지황주세, 당귀주세, 산조인초, 백자인거유)은 약효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포제법'으로 제조되었다.

장원환은 동의보감 내경편 신문(神



門) 중 건망(健忘)의 대표처방 중 하나다. '이 약을 먹으면 하루에 천 마디 말을 외울 수 있고 가슴에 만권의 책을 간직할 수 있다'고 기록되며 선비들이 장원급제를 위해 복용한 보약으로 전해진다. 장원환 처방을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현 기준 기어케어정이 유일하다. /이세경 기자

## '에이피 선세럼' 자외선 차단부터 항산화까지

아모레퍼시픽 '에이피 뷰티' 신제품  
얇게 밀착돼 베이스 대응 활용 가능

정돈하며 자연스럽게 밝혀 준다. 또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스킨케어 성분을 75% 이상 함유한다.

아모레퍼시픽은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 에이피 뷰티에서 '에이오 트리플 디펜스 에어리 톤업 선 세럼'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부터 항산화 관리, 톤업 효과까지 갖췄다. 에이피 뷰티의 톤-리플렉터 기술이 적용돼, 노화로 인해 칙칙한 피부 톤과 결을

이와 함께 수분감 있는 선 세럼 제형을 처방한 것도 특징이다. 피부에 얇고 고르게 밀착되며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이 없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메이크업 베이스 대응으로 활용 가능해 공기처럼 가벼운 피부 표현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